

전남스포츠클럽 '우리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전남 36개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열린 2024년 제2차 전남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에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2024 제2차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성료

클럽간 성과 공유, 지정스포츠클럽 영역 확대 기폭제 전남, 전국 최다 클럽 운영...내실있는 동반 성장 기대

전남도체육회가 전남 스포츠클럽 동반 성장과 클럽간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0-11일 목포 폰타나호텔에서 '2024년 제2차 전남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박2일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도내 36개 공공스포츠클럽(총

합형 19개, 한종목 17개)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해 클럽간 정보교환 및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첫 날에는 김유경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강사의 '나라시스템 정산 및 이월과정 교육', 신세영 스포츠안전재단 강사의 '스포츠안전교육'이 실시됐다.

둘째 날에는 백유숙 영암세한스스포츠클럽 사무국장도 김선행 무안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스포츠클럽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발표에 이어 최윤희 음악연구소 대표의 '영화와 함께하는 할링뮤직'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전남도체육회는 워크숍을 통해 전남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영역을 확대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에는 210여개의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남은 가장 많은 36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수뿐만 아니라 자립과 운영에서도 최고의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제1회 전남스포츠클럽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25년 예산 4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스포츠클럽,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기자

"이정후 내년 SF 키 플레이어"

멜빈 감독 "내년 스프링캠프 건강한 몸으로 합류할 것"

밥 멜빈(63)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감독이 2025년 외야수 이정후(26)의 '건강한 복귀'를 확신했다. 멜빈 감독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윈터미팅이 열린 지난 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현지 취재진과 만나 "이정후는 스프링캠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합류할 것"이라며 "훈련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말했다. 이정후는 올해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천3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거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그의 MLB 첫 시즌은 너무 짧았다. 이정후는 5월13일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 1회초 제이머 칸델라리오의 타구를 잡고자 뛰어올랐다가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정후의 왼쪽 어깨에 '구조적인 손상'(structural damage)이 발견됐고, 여러 의료를 만난 뒤 수술하기로 했다. 이정후는 6월 초 수술대에 올랐고, 37경기 타율 0.282(145타수 38안타), 2홈런, 8타점, 2도루, OPS 0.641을 남긴 채 MLB 첫 시즌을 마감했다. CBS스포츠는 "이정후가 받은 왼쪽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의 재활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이정후는 재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멜빈 감독의 말을 종합하면 이정후가 내년 2월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하고 3월 개



지난 2월28일 열린 시애틀과의 첫 시범경기에서 안타를 신고한 이정후. /AP=연합뉴스 DB

막전 출전을 준비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2월 중순에 스프링캠프를 시작하고 2월23일부터 시범경기를 치른다. 개막전은 내년 3월28일 홈 오리올파크에서 열린다. 2025년 개막전 상대는 공고롭게도, 이정후가 다칠 때 대적한 신시내티다. 야구 예측 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를 고안한 댄 짐 보스키는 이정후가 2025년 타율 0.281, 출루율 0.337, 장타율 0.400, 7홈런, 48타점,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 2.0의 무난한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여자기성전에서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한 최정 9단. <한국기원 제공>

최정, 5번째 여자棋聖 통산33번째타이틀 수확

한국 여자바둑의 간판 최정(28) 9단이 일본 천재 소녀 나카무라 스미레(15) 3단을 꺾고 통산 5번째 여자기성 타이틀을 획득했다. 최정은 지난 10일 열린 제8회 해성여자기성전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스미레에게 15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1국을 패한 뒤 2, 3국을 내리 이긴 최정은 이로써 종합전적 2-1로 여자기성전 우승컵을 안았다. 최정이 여자기성에 오른 것은 2·3·4·6회 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최종국에서 흑을 잡은 최정은 중반 우변 전투에서 미세한 우세를 확보한 뒤 기세를 몰아 백 대마를 포획하며 KO승을 거뒀다. 최정은 2010년 입단 이후 통산 33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스미레는 12-14일 열리는 제29회 하림배 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 김재영 9단을 상대로 첫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연합뉴스



손현호(오른쪽)가 11일 열린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대한역도연맹 제공>

손현호, 세계역도선수권 '銅'

남자 81kg급 용상 3위...인상은 7위, 합계 4위 그쳐

손현호(24·국군체육부대)가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 용상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인상에서 7위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는 4위를 해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손현호는 11일(한국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에서 인상 155kg, 용상 197kg, 합계 352kg을 들었다. 용상에서는 193kg을 든 가이거시즈 토라에우(21·투르크메니스탄)와 권

대희(18·대구체고)를 1kg 차로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상에서 7위에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는 4위를 했다. 합계 3위 무캄마드코디르 토슈테미로프(23·우즈베키스탄)의 기록은 355kg(인상 165kg·용상 190kg)으로 손현호보다 3kg 높았다. 지난 9일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급 경기에서 합계 358kg(인상 158kg·용상 200kg)을 들어 한국

주니어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던 권대희는 처음 출전한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합계 351kg(인상 155kg·용상 196kg)으로 6위에 올랐다. 북한은 이날도 함께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북한 기수로 나선 리정송은 남자 81kg급에서 인상 168kg, 용상 205kg, 합계 373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자 64kg급에서는 리숙이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연합뉴스

윤이나, 내년 LPGA 무대 뒀다

Q시리즈 8위...출전권 획득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한 윤이나가 내년부터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다. 윤이나는 1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클럽 크로스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퀴리파이(Q)시리즈 최종전 마지막 5타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순위 8위(15언더파 343타)에 올랐다. 윤이나는 기대대로 상위 25명에게 주는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윤이나는 오는 14일 귀국했다가 미국 전지훈련을 비롯해 내년 LPGA 투



윤이나의 아이언샷. <KLPGA 제공>

어에서 쥔 준비에 착수한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성적 부진해 투어 카드를 지키지 못했던 박금강과 주수빈은 공동 10위(12언더파 346타)와 공동 13위(11언더파 347타)로 내년 출전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선수단 <아시아 핸드볼연맹 제공>

한국, 亞여자핸드볼선수권 7연패 무산

속적 일본에 1점차 역전패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속적 일본에 역전패하며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7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일본은 2014년 우승 이후 20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전반을 12-9, 3골 차로 앞서며 마쳤지만, 후반 초반에 빠르게 따라잡히며 역전을 허용하면서 24-25로 역전패했다. 한편, 이연경이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정지인은 레프트백으로 선정됐다. /박희중기자

패 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패배에 이어 연속으로 패하며 일본의 상승세를 실감해야 했다. 이계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24-25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19번째 결승에 올라 세 번째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7연

'올해의 선수' 안세영, 왕중왕戰 "출발이 좋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 세계랭킹 10위 수파니다카테통 완파

'올해의 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왕중왕전격에 해당하는 월드투어 파이널 첫판에서 세계랭킹 10위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낚았다. 안세영(세계랭킹 1위)은 1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펀터에서 열린

HSBC 세계메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2024 여자 단식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수파니다카테통(태국·10위)을 2-0(21-16 21-14)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은 올림픽 쟁

파인과 한 시즌 열린 국제 대회 성적 상위권 선수 등 단 8명의 선수(팀)만 참가하는 왕중왕전 격 대회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 4강에 올라 그해 최강자를 가린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

세영은 12일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4위)와 B조 2차전을, 13일 중국의 한웨이(8위)와 3차전을 치른다. 안세영은 지난 9일 2년 연속 BWF가 선정하는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올해의 여자 선수상)를 받았고 동료 선수들이 뽑은 '플레이어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도 선정됐다. 안세영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월드투어 파이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연합뉴스